
격변하는 시대의 학교 : 과학기술, 교수법, 그리고 불평등

이네스 두셀

멕시코 국립폴리텍연구소 수석연구원

원제와 출처: Inés Dussel, “Escuelas en tiempos alterados: Tecnologías, pedagogías y desigualdades”, *Nueva Sociedad*, No. 293, mayo–junio de 2021, pp. 130–141.

핵심어: 인터넷 접속, 불평등, 교육, 과학기술, 라틴아메리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 미국의 저명한 잡지에 실린 글에서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가 온라인 교육의 대규모 실험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라고 지적했다.¹⁾ 유명한 교육 역사학자인 그 저자에게 전 세계 상당수 학교의 폐쇄는 가상교육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시험해보고 이를 오프라인 대면 교육의 성과와 비교해볼 수 있는 이례적인 기회로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있는지 1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통제된 실험이라는 아이디어는 2020년에 제공된

1) Jonathan Zimmerman, “Coronavirus and the Great Online–Learning Experiment”,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0/3/2020.

소박한 교육 이면의 억누를 수 없는 오만으로 비칠 뿐 아니라 개념적, 정치적 몰상식으로 보인다. 예측이 실패했다는 점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교육을 개별적이고 통제 가능한 변수들의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육 과학기술을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한정된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곧 관리하려는 방식의 결합에 있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팬데믹 시기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교육은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 신체와 지식의 물적인 조직화가 근본적이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진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 공적 인프라 정책, 개인 간의 상호작용, 시간,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 지리적 위치, 정서적 지지, 사용되는 교수법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과학기술 구매력이 높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접근성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생생히 알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가상교육’이라는 것을 왓츠앱(WhatsApp)이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플랫폼과, 교육용 텔레비전, 교재, 인쇄물 자료 등 훨씬 더 오래된 도구들의 낯선 결합인 ‘원격 교육’으로 해석했다는 점도 그대로 목격되었다.

한편, 이야기와 상상은 여전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 기대되는 것 중에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거대한 실험이라는 아이디어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COVID-19 위기의 영향으로 학교 대면 수업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도 역설적이다. 대면 교육은 이전부터 포위 공격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과 성인 모두 재평가하는 시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건물의 폐쇄를 방학이 일찍 시작된 것처럼 여겨 환호했다. 몇 개월 후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교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한 점은 2021년 초에 교실 수업이 제공될 새로운 방향이 잡혀있을지 하는 것

이다. 교실 수업은 선거 투쟁의 깃발이 되어 있으며, 한때 ‘전통적인’ 학교에 대한 강경한 비판자이자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의 옹호론자였던 세계은행과 같은 의심의 여지없는 동맹세력들도 지금은 지지하고 있는 방식이다.²⁾

겨우 몇 년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이토록 복잡적이고 낯선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학교를 둘러싼 이러한 새로운 상황들은 과거의 학교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교육 시스템에서 일어난 팬데믹 경험에 대해 특히 불평등, 과학기술, 교수법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성찰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관계는 사실 일정 정도는 새로운 것도 없다. 학교는 늘 수업용 도구들 및 과학기술을 인간의 행동과 고유의 방식으로 접합하는 사회기술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칠판, 노트, 연필이든, 건물이든 디지털 기기든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창문과 칠판이 딸린 강의실로 구성된 ‘현대식’ 학교 건물은 일정한 형태의 단체 활동이나 말의 집중 및 순환의 구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공간이나 시설이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18세기 학교에서는 이러한 구조화가 어려웠다.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팬데믹은 학교를 가정으로,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 옮김으로써 이 사회기술적 환경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의미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으로의 이동이 전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학교가 교사나 학생의 방이나 거실, 심지어 욕실에 느닷없이 배치되기도 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항구적인 불평등이 관통하는 지점이다. 이는 사유와 규명이 필요한 또 다른 경험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따라서 팬데믹에서 무언가 교육적 실험이 존재해왔다면 그것은 가상성(virtualidad)의 실험이 아니라 학교 활동을 다른 영토

2) Banco Mundial, “Actuemos ya para proteger el capital humano de nuestros niños. Los costos y la respuesta ante el impacto de la pandemia de covid-19 en el sector educativ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Washington, DC, 2021.

들로 옮겨 배치하는 실험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토들은 가상교육의 도구들에 접근성이 있는지 배제되는지 그 이분법 이상의 훨씬 더 이질적인 실험이고, 공공 정책에 더욱 복잡한 도전을 제기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인프라의 불평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팬데믹 초기에는 디지털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교육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보편적인 과학기술 설비 프로그램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각국이 적절히 대응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듯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많은 국가들은 학교 건물의 폐쇄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즉각적인 이동,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적 상호작용 데이터의 사유화와 상업화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러한 전환이 소수 국가에 그쳤고, 특정 그룹의 우발적인 탈학교화에서부터 왓츠앱이나 SNS의 집중적인 사용을 망라하는 대안들이 시작되었다. 디지털화의 불완전한 접근성을 인식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디지털 플랫폼, TV 프로그램, 인쇄물 등의 방법을 포함하는 다중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중적인 전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내내 과학기술 인프라는 불충분했고 불평등했으며, 많은 경우 진부했다. 심지어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디지털화된 코드를 받을 수 없었고, 이는 교육의 연속성이라는 계획에 영향을

3) 이러한 나라들은 접근성의 불평등도 존재했다. 특히 도시 빈곤층의 경우 그렇다. 유럽의 경험을 다룬 참고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Niels Kerssens y José van Dijk, "The Platformization of Primary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2021; Ben Williamson y Anna Hogan, *Commercialisation and Privatisation in/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Education International, Bruselas, 2020.

주었다. 가용한 과학기술 기기의 유형이나 인터넷 연결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 기기들을 수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균등한 상황이었다. 디지털 불평등은 전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을 따로 배치시키는 식의 선명하고 명확한 분리의 간극이 분명 아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불평등이란 오히려 구불구불하고 다층위적인 과정이고 밀도가 매우 큰 지형도로 이루어져 있다.⁴⁾

팬데믹 시대의 교육 시스템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의 과학 기술 인프라의 불평등 지형도에 대해 그 배경을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11~12월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이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서는 학령기 인구 가정에서 과학기술의 가용성에 대해 조사했다. 2020~2021학년도의 자료를 보면 사용되는 기술 기기의 다양성이 확인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의 우위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교육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컴퓨터(PC든 노트북이든)의 비중이 증가한다. 초등학생은 6.7%만 주요 수단으로 디지털 TV를 사용하는데, 이는 교육 연속성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근본적인 전략인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집에서 배워요”(Aprende en casa)라는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이 설문조사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정보는 이러한 장치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이다.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의 74.6%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장치를 공유하는데 이는 학생의 나이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런데 상위 레벨에서는 이런 상황이 역전되어 67.7%의 학생이 기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팬데믹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전체 230만 명)

4) Jenna Burrell, *Invisible Users: Youth in the Internet Cafés of Urban Ghana*, The MIT Press, Cambridge, 2012.

중 비중이 제일 큰 그룹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다. 이 연령은 대다수 휴대폰으로 수업을 듣는다.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비율은 중고등학생의 25.5%였고, 중상류층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4%에 이른다.⁵⁾ 원격 접속이나 원격 학교 활동의 가능성이 기기의 접근성의 불평등이나, 휴대폰에 대한 큰 의존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휴대폰은 컴퓨터에 비하면 사용의 불평등과 텍스트의 자율적인 생산과 관리 가능성이 적은 기기여서 그렇다.

이 설문조사는 데이터의 가용성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보면 데이터 가용성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연속성에 포함되기 위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제약임을 알 수 있다. 멕시코에서 특히 복잡한 경우는 시골 학교들의 경우다. 이들은 지리적 고립 정도나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진행 중인 어느 연구를 보면,⁶⁾ 시골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인구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인터뷰가 있다.

[이 마을은] 수신되는 TV 신호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위성 TV로만 접근할 수 있는데 4~5개 가구만 위성 TV가 있지요. 인터넷은 개인이 판매하며, 토큰 형태로

5) INEGI, *Encuesta para la medición del impacto covid-19 en la educación* (Ecovid-Ed) 2020, <www.inegi.org.mx/contenidos/investigacion/ecovid/2020/doc/ecovid_ed_2020_presentacion_resultados.pdf>.

6) 프로젝트 제목은 “Recepción, experiencias y prácticas de la estrategia ‘Aprende en casa’ en la emergencia covid-19. Un estudio desde la heterogeneidad”로, 로사 마리아 토레스(Rosa María Torres)가 연구책임자이다. 이 연구는 멕시코국립교육대학(Universidad Pedagógica Nacional), 국립폴리텍연구소 산하기관(DIE-CINVESTAV), 멕시코 메트로폴리탄자치대학 소치밀코 캠퍼스(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Unidad Xochimilco), 멕시코 FLACSO 등이 함께 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의 인터뷰들은 유리 파에스(Yuri Paéz)와 본 연구자가 수행했다.

만 살 수 있습니다. (...) 토큰은 시간당 20페소(미화 1달러에 해당함)지요. (...) ⁷⁾ 인터넷이 들어오고 더 큰 안테나를 설치했다라면 좋았을 테지요. 위성 인터넷이 있고 토큰값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 두 시간 동안 열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⁸⁾

접속을 어렵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어떤 교사들은 2~3주에 한 번씩 마을을 방문하며 인쇄물을 갖다주기도 하는데, 교사가 감염상태일 경우 학교 교직원이나 지역 사회 사이에 큰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 또 어떤 교사들은 인터넷 수신이 되는 학생과 일정을 정해 왓츠앱으로 통화를 하지만 가족들이 감당할 높은 비용을 고려해서 짧게 통화를 하게 된다. 이 학교의 한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딸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토큰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어떠한 경우든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 연결과 플랫폼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연결 비용을 교사나 가정에게 전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상황은 이미 매우 악화되고 있다.

접속의 불안정성은 도시 환경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멕시코시티와 톨루카에서 인터뷰한 교사들은 100% 왓츠앱을 사용하지만, 페이스북, 구글미트(GoogleMeet), 구글클래스룸(GoogleClassroom), 무료 버전의 줌(Zoom), 패들렛(Padlet), 에드모도(Edmodo), 카훗(Kahoot)과 같은 플랫폼도 사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플랫폼의 다양성은 교사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7) 커뮤니티의 한 교사가 학생 가정의 평균 수입을 계산한 것을 보면 월 소득 3,000페소 (150달러)인데, 이를 하나의 매개변수로 잡을 수 있다. 2021년 3월 12일 멕시코 케레로 주 농촌의 공립 원격중학교 교사의 인터뷰 자료다.

8) 2021년 3월 22일 멕시코 케레로 주 농촌의 공립 원격중학교 교장의 인터뷰 자료.

다양한 지원수단들에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레로의 시골 중등학교 교사는 왓츠앱에서 매주 15명의 학생들로부터 숙제가 포함된 50~80장의 사진을 받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정리하고 수정한 다음 교육 업무 수행의 증거로 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플랫폼과 지원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은 아르헨티나 교육부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에서는 이 학교들의 절반 이상은 평균 5개의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한 개 소셜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또 어떤 학생은 세 개에 접속하는가 하면 하나도 접속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그런 경우 교사는 승용차나 자전거를 타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 인쇄물을 교환한다.⁹⁾

이 모든 경우에 학습 활동의 체계성을 부여하고 다음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기록을 복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도 교사다. 이 작업은 학교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24시에서 7시까지 일하는 방식이 된다. 이는 교사의 휴식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연속 업무 시간제라고 할 수 있다.¹⁰⁾

다른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수행된 동일한 연구에서 이러한 이질성이 교수법적 상호작용을 조건화함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한 아르헨티나 교사의 대다수는 학생들과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왓츠앱이라고 말했다. 왓츠앱은 초등학교 교사의 89%, 중고등학생의 75%가 사용하며 이메일도 포함한 수치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의 27%와 중등학교 교사의 38%는 줌이나 구글미트를 통해 학생들과 동시 접속 수업을 한다고 말한다. 이 플랫폼들의 교수법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9) Ministerio de Educación de Argentina, Secretaría de Evaluación e Investigación Educativa, “Informe preliminar. Encuesta a docentes. Continuidad pedagógica en el marco del aislamiento por covid-19”, 8/2020, <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informe_preliminar_encuesta_a_docentes_ennpcp.pdf>.

10) Jonathan Crary, 24/7. *El capitalismo tardío y el fin del sueño*, Paidós, Buenos Aires, 2014.

왓츠앱은 일상적인 연락을 허용하고 오디오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미지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과제 인쇄본이나 연습용 교재의 사진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순서를 개발한다거나 그룹 상호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왓츠앱을 쓰면 시작도 끝도 명확하지 않은 대화가 무질서하고 다중적이며 자유분방하게 일어난다. 그에 반해 줌이나 구글미트와 같은 동시적 회의 플랫폼은 상호작용을 지시할 수 있고 소그룹을 구성하며, 동일한 화면에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텍스트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대신 휴대전화에 비해 큰 화면과 광대역 수신이 필요하다. 한편 줌과 같은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개인 공간이 더 필요하고 개별적인 학습수행이 더 요구되며,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¹¹⁾

아르헨티나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농촌학교와 도시학교 간에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의 사용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 회의 플랫폼의 경우 사립 중등학교 교사는 70%가 지원하지만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34%가 사용하며, 그에 비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31%로 떨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사립 초등학교 교사의 72%는 줌, 구글미트 등의 플랫폼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만 공립학교 교사는 20%, 시골학교 교사는 10%만 이 방식으로 학생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왓츠앱이나 그 밖의 앱 메시지 네트워크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78%, 시골학교 교사의 96%가 사용하는 반면, 사립 중등학교 교사는 43%만이 자주 사용한다.

이상의 파노라마식 고찰에 따르면, 기존의 불평등이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동시 회의에 대한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특권층에 제한되며, 이미 주장되기 시작한 대로

11) Geert Lotvink, "The Anatomy of Zoom Fatigue", *Eurozine*, 2/11/2020.

공공 데이터 보급 정책이 없을 경우 이들만 디지털 연결에 지리적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역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제나 버렐(Jenna Burrell)이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은 사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보이지 않는 사용자’는 ‘데이터 정부(gobierno por los datos)’ 및 감시 자본주의에 잘 통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¹²⁾ 어떠한 경우든 통합은 이분법적 대립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잡한 권력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다.

불평등이 드러나는 방식과 관련하여 짚어볼 만한 또 다른 측면은 일부 정책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 조건(독점인지 공유인지)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서 텍스트나 시청각 텍스트의 제작과 처리를 위한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과 교수법 간의 이러한 결합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배제된 계층의 경우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왓츠앱이나 인쇄물 방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격 교육’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동시 회의에 참가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룹 대화를 함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리적 공간의 부재는 교실이 많은 결핍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불평등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유발하는 것에 비하면 더 평등한 조건에서 교육적 만남을 조직해왔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서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사와 가정이 대단히 이질적인 지형도 안에서 상호접속하고 학습을 운영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12) 각주 4)에서 인용한 버렐의 책 외에 이 주제를 다룬 참고자료로 에브게니 모로조프의 뛰어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vgeny Morozov, “Capitalism’s New Clothes”, *The Baffler*, 4/2/2019.

팬데믹 시대의 교수법¹³⁾: 자율성의 여지

서두에 지적했듯이 학교 건물이 폐쇄되자 새로운 교육 형태를 시도하고 연습 활동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발명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경험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네 벽이 없는 학교란 무엇인지, 교실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 학교란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이었다. 자율성을 장려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실험되었고, 디지털화의 효과와 범위가 논의 되었다. 이는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질성 그 자체였다. 멕시코시티의 한 교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아르헨티나의 독서 장려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게레로 주의 어느 교사는 미초아칸 주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 경우 과학기술 인프라 덕분에 다른 교육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가능했고, 활동의 여지나 연합 프로그램, 교육 전략 등에서도 확장을 시도할 수가 있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시도는 팬데믹의 특수 조건으로 인해 학교가 성적평가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팬데믹 시기의 학습 손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나중에 보충하는 전략을 설계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학교의 평가 패러다임이 철회되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연습 활동이 있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은 차단될 것이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성적평가를 하지 말라는 요구에 직면하여 많은 교사들은 여러 다른 형태의 성취 기록방식을 개발했고, 이메일이나 가상 수업을 통해 과제를 검토하는 식의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했으며, 학생 스스로 평가를 해보게 하는 자가 진단평가나 가족과 함께해보는 평가 등의 방식을

13) Ben Williamson, Rebecca Eynon y John Potter, “Pandemic Politics, Pedagogies and Practices: Digital Technologies and Distance Education during the Coronavirus Emergency”,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Vol. 45 No 2, 2020.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자가진단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평가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 경우 부모의 참여가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더 지역적이고 임시적이며 즉흥적인 ‘처리방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요구되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더 필요했다. 멕시코시티의 어느 초등학교 5학년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더군요. 제가 회사에 가지고 다니는 기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활동과제를 보내주시면 일주일마다 제출할게요 (...) 첫 학기에는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2학기에는 이제 아이의 참여가 더 많아졌지요. 그런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출하는 과제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과제도 있으니 참여가 좋아진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이의 현실 환경 때문이었지요.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거든요.¹⁴⁾

이러한 지역적 배치는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가 취할 수 있는 자율성의 여지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이는 학교 시스템 내의 교육 전통이나 정치적 관계, 특히 학교의 다소 위계적인 관계 및 확립된 통제 형태와 관련이 있다.

교수법적 전통의 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시도는 이미 수행되고 있던 흔적을 따른 것이었지만 몇 가지 새로운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팬데믹의 처음 몇 달

14) 2021년 3월 26일 실시한 멕시코시티의 공립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의 인터뷰.

은 숙제를 많이 내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확신에 기초하여 과제 제출에 시간을 쓰던 시기였다.¹⁵⁾ 그러나 곧 팬데믹 상황은 감정과 정서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인적인 글쓰기를 도입하게 만들었다. 멕시코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편지를 쓰고, 교사들은 비교과 지식이지만 학생들의 삶에서 소중한 지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게레로 주의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해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뭘 배우는지 그 과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예를 들어 펍시콜라, 콜라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청량음료나 가당 주스를 마시지 말라고 제안했어요. 물을 마실 것과 마시는 물이 몇 잔인지 세어 보는 활동을 부과했지요. 또 다른 과제는 관찰 활동입니다. 건강하거나 아픈 사람을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고, 관찰하고, 코멘트를 다는 거지요. 또 자신이 가진 신체에 대해서,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관찰하는 활동도 부과합니다. (...) 아이들이 보 내온 편지에서는 밭을 갈러 갔다는 등의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가축을 몰아 풀을 뜯게 하러 데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일찍 일어나 난로에 불을 켜고, 커피를 만들고, 가족들과 밥을 먹었어요. 청소를 하고, 과제를 하고, 다시 멧돌을 돌려 토르티야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그들은 가족의 유대를 더 중요하게 보지요.¹⁶⁾

멕시코에서는 지역적인 지식과 관행이 더 많이 도입되었다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림, 만화, 사진 같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팬데믹 일기 쓰기 활동이 장려

15) Patrick Rayou (dir.), *Faire ses devoirs: enjeux cognitifs et sociaux d'une pratique ordinaire*,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Rennes, 2010.

16) 2021년 3월 12일 실시한 게레로 주 농촌 공립 원격중학교 교사의 인터뷰.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변두리 지역에 있는 공립 중등학교의 교육 고문은 세 명의 문학예술 담당 교사가 개발한 경험을 설명했다. 이들은 4학년 학생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일기를 쓰자고 제안했다. 교사들은 교실에 답장을 게시했고 그러자 학생들의 글이 속속 도착했다. 매우 사적인 내용의 과제 활동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지가 문제였다. 교사들은 공동 교육을 해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청소년들이 학교와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사들이 답장을 쓰는 데 하루 이상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기 일기를 받았다는 선생님의 확인 답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교사들은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고, 따라서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이 필요했다.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교육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자율성의 여지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한 교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미 하이브리드 교육 상황에 있고 출석 수업은 간헐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종이 없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sin papeles)은 통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계획의 형식에 제약을 없앤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즉석에서 만든 기준과 결정들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 규제가 약하고 당국에 대한 두려움이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멕시코 학교의 경우 상황이 다르고 자율성의 관행은 잘 확립된 관료적 형태에서 구체적인 한계를 찾는다. 엔리케 페냐 니에도 정부에서 교사의 직무에 대한 국가의 의심 관계는 2013년부터 교사 평가가 설치된 이후 임계점에 도달했지만, 현 정부에 와서는 법안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멕시코 교사들은 당국에 의해 교사 평가의 시대에 행해진 것처

럼 자신의 교육 업무의 샘플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 증거들로는 교육 수행 사진들이 있는데, 학생 수와 활동 개수가 많으니 사진 숫자가 몇 배로 많아져 비대한 관료적 파일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교사가 해당 업무들을 수행했음을 보겠다는 교사의 기록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의심된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증거’의 관계는 약하고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위해서든 교사와 당국의 관계를 위해서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고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 피드백을 의미하는 교육적 작업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과제를 보내고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쁜 상황은 ‘증거’가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관계에서 마치 교환 화폐처럼 통용된다는 점이다. 증거가 될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불평하거나 부모에 대해 불평하는 교사의 소리를 듣는 것도 흔한 일이고,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려는 일만 신경 쓰는 ‘게으름뱅이’라고 교사에 대해 불평하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장과 교사의 관계에서도 재생산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왓츠앱이나 그 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얼마나 일을 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은 또 다른 서식의 ‘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근무 시간에 교사의 의사소통이 없을 때마다 학교장이 해당 서식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팬데믹 시기의 교수법들에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그 정도 차이가 서로 너무 컸다. 이미 기존에 쓰던 수단이나 자원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고, 각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사회 공학적인 상황은 특정한 교차방식이나 개방, 접합은 가능하게 하면서 또 다른 방식들은 제한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저장기록을 위해 관료주의적 열성이 확장되기도 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팬데믹은 입장을 변경하고 정확성이라는 것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이다. 불평등이 더욱 명백해지고 문제 상황으로 출현하며,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비추어 교수법을 수정해야 하는 시기였다.

팬데믹이 지나가면 이 모든 것 중 무엇이 남을까? 이미 초기 예측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에피소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시각들을 얻을 수 있다. 역사가 엠마누엘 생 퀴시앙(Emmanuel Saint-Fuscien)에 따르면, 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의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서는 전쟁 당시에 있었던 많은 변화(관리직에 더 많은 여성이 자리 잡은 일, 학교 공동체에 더 많은 자율성과 단체 활동이 보장된 일, 새로운 커리큘럼 내용에 대한 개방)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변화들은 유지되었다. 가령 1919년에는 남녀 교사의 급여가 동일해졌고, 1921년에는 ‘새로운 학교를 위한 국제연맹’(Liga Internacional para la Escuela Nueva)이 창설되었으며, 1923년에는 초등학교 계획 안에 어린이 자치제가 도입되었고, 나아가 통합 중등학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남자들이 같은 참호에서 싸웠다면 아이들은 같은 학교 벤치에 앉아야 했다.”¹⁷⁾ 허약하고 취약한 상황을 겪은 경험, 더 나은 공공 기반 시설의 필요성을 경험한 일, 불평등의 영향에 대해 우려한 경험,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동성 학교를 시험해 본 경험, 그리고 보다 참여적이고 지적인 도전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료적 통제와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경험들이 지속적인 흔적을 남기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지만 공공 정책, 연구 작업,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시도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17) Annie Tobaty, “L'école face à l'épreuve: quelle histoire?”, entrevista a Emmanuel Saint-Fuscien en *Administration et Éducation* No. 169, 2021, p. 20.

시도들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학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능성을 명확히 찾아
낼 수 있게 될 터이다.

조영실 옮김